

# 전문성 강화로 질적 수준 높여야

엄밀한 기준과 학문적 성실성 요구돼

색인의 역사는 길다. B.C. 2000년 경 인간의 정보욕구에서 출발한 색인은 학술의 요체로 발전했고, 이제는 지식 네트워크의 나침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색인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색인을 책의 체제상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로 생각해 온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얻는 일이 정보화 시대의 최고 미덕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어느 것이 필요하고 중요도가 높은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를 '지시' 해주는 '2차정보'를 먼저 찾게 마련이다. '2차정보'란 바로 '색인' (index)을 가리킨다. 밀림처럼 복잡한 지식 네트워크에서 색인은 1차정보의 위치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색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사전' '총서' '단행본'의 권말부록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도서관의 서지목록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색인의 한 종류다. 전자매체에서는 '콘텐츠' 자체가 색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메인화면'이 대표적인 경우다.

## 색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해

색인이 중요시되는 출판 분야는 학술서다. 학술서의 색인작업은 보통 저자의 몫이다.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학술서의 경우 색인은 책을 완결짓는 마지막 작업"이라고 남태우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는 말한다. 서지학적 체제에서 볼 때 색인이 빠져 있거나 요식행위에 그친 학술서는 사실상 '실패작'이다.

남교수는 "책의 중수로 보면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출판선진국이지만 색인으로 보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고 비판한다. '대학교재'의 상당수는 아예 색인이 빠져 있다. 일조

각 김창식 편집장도 "필자들 대부분이 색인을 그저 책의 체제상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로 생각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단어들의 나열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는 색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와 '위원회'가 제도화돼 있다. 색인을 고도의 지적 작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어 저자와 출판인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한다.

이희재 교수(숙명여대 도서관장)는 색인이 항상 "엔드 유저' (end user)의 입장에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용자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야 좋은 색인이라는 말이다. 이교수는 그러기 위해서 "독자의 목소리를 가장 자주 접하는 편집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편집자가 색인작업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출판시장이 협소하다보니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김편집장은 말한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국내외 학술잡지의 색인을 전산서비스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색인 전산서비스는 몇가지 단계를 거친다. 일단 자료를 구해서 기초 서지사항과 키워드를 입력한다. 국내자료의 경우 사서들이 직접 작업하고 해외자료의 경우는 색인데이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에 저장한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의 이영주 관장은 신뢰도 높은 색인의 조건에 대해 다음처럼 말한다.

"검색과 관련된 색인의 기술적 요소를 개발할 뿐 아니라, 그 색인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정보자료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 대상의 선정과 수집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관장은 사용자의 언어습관, 자료 접근 형태, 심리상태를 연구해 실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보적 관계

남태우 교수는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해 색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든 분류와 목록이 통합된 색인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곳은 없다"고 지적한 남교수는, 특히 전산학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연구 결과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축에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색인'의 이용빈도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부족해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이다.

반면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책세상)의 지은이인 배식한씨는 웹에서 구현되는 하이퍼텍스트와 책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책에서는 색인이 고정돼 있지만 웹에서는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 예민한 손놀림으로 책장을 앞뒤로 넘겨야 하는 고단함도 컴퓨터가 모두 대신해준다"며 전통적인 '색인' 개념이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웹상의 정보서비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강성민 기자